

‘여순사건’ 진실과 국가폭력 실상 14인의 증언

순천대 여순연구소 ‘여순 10·19 증언록...그리운 아버지’ 출간 유족들 가슴절절한 사연...감춰진 진실 밝혀내는데 일조할 듯

“할아버지가 사회주의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때 아버지를 잡으려 한 거지요. 당시 아버지는 면서기를 하고 있었는데 잡히면 죽으니 피해 다녔어요. 결국 집에서 잡히고 말았어요. 잡혔던 그날, 죽어버렸어요. 서면 구방실에서 죽어버렸어. 총살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야. 그날, 연락을 받고 집안 어른들하고....., 나 7살 때 시신을 수습했지요.”

순천시 향동에 거주하는 김연수(78) 씨는 여순사건 당시 부친(김우석)을 잃었다. 부친은 독립운동가 한 조부(김기수)로 인해 경찰로부터 쫓겨다녔다. 김연수 씨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소작쟁의를 벌였고, 18세부터는 독립운동을 했다.

해방 이후 할아버지는 순천에서 인민위원회를 주도했고, 그로 인해 면서기였던 아버지가 경찰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결국 집에서 숨어 있던 아버지는 붙잡혔고, 서면 구방실에서 진압군에 의해 사살됐다.

‘여순사건’의 진실과 국가폭력의 실상을 기록한 증언집 ‘여순 10·19 증언록-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그리운 아버지’가 출간돼, 당시의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는데 일조할 것을 보인다. 순천대 여순연구소가 엮은 책에는 140여 명 구술자의 채록 중 김연수, 홍순례, 이숙하, 박영규, 오영순, 정



성례, 김계수, 강질용 등 14명의 증언이 담겨 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김정아)가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책

에는 재심재판의 주역인 장경자 씨와 부인 진점순 씨 삶의 내력도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이밖에 당시 철도원으로 근무하다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실종된 김영기 씨의 아들 김규찬 유족의 사부곡 등 가슴 절절한 사연들이 담겨 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병사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단독정부 수립 반대 등을 주장하며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를 점령했는데, 진압과정에서 무관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에서 고(故) 장환봉씨의 딸 장경자(왼쪽)씨와 아내 진점순(97)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감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묘지 등 국립묘지 설 연휴 음료·국화꽃 무료제공 보훈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

국가보훈처가 설 연휴 국립 5·18민주묘지 등 국립묘지 참배객을 지원하고, 전국 5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

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묘지와 4·19민주묘지에서는 참배객에게 음료와 국화꽃을 무료로 제공하고, 3·15민주묘지는 꽃놀이·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마당도 운영한다.

대전현충원은 대전지하철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보훈모시미버스’ 6대를 운행하고, 연휴 기간 묘역 후문을 개방한다. 임실·영천·이천호국원은 인근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고령 및 거동이 불편한 참배객은 묘역까지 전동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안전신청은 국립묘지안전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 또는 각 국립묘지 인터넷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묘지로 문의하면 된다. 또 전국 5개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운영하고 구급차량도 상시 대기한다.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해 국립묘지에서는 인근 소방서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약품을 준비하는 등 참배객 안전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 보훈행정과 보훈가족을 위한 적극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설 성수품 19개 가격조사...전통시장 가장 저렴

설 명절에 필요한 성수품 22개 중 19개 품목은 전통시장이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YWCA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팔고 있는 설 성수품을 대상으로 물가 조사를 한 결과 22개 품목 중 19개 품목은 전통시장(양동·말바우)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와 배, 밤, 꽃감, 호박, 고사리, 도라지, 숙주,

소고기(국거리·산적용), 닭고기, 계란, 북어포, 동태포, 밀가루, 두부, 무, 배추, 쪽파 등이다.

대형마트에서는 대추와 돼지고기, 조기 등 3개 품목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 반면 사과와 배, 밤, 고사리, 도라지, 두부, 쪽파 등 7개 품목은 대형마트가 가장 비쌌다. 백화점의 경우 최저가 품목은 없고 대형마트에 이어 15개 품목이 가장 비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설 연휴 포근하고 귀경길 많은 비 예보

설 연휴인 24~27일 광주와 전남은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연휴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권 분포를 보이고 낮 최고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다. 연휴 첫날과 설 당일엔 구름이 많겠다. 귀경이 시작되는 26~27일은 남해상을 통과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남해안 등에 최대 8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수지속 시간이 길고 내륙에선 새벽 사이

내린 비가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이른바 ‘블랙아이스’ 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모든 바다에서 연휴 내내 파도가 높아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귀경객의 주의가 필요하겠다. 해안에는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귀성길과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며 “강풍이 부는 지역은 시설물 파손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8 달뜨기 06:15
해질 17:51 달짐 16:15

귀성길 안전운전 하세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비온뒤 맑	7/12	보성	비온뒤 맑	5/12
목포	비온뒤 맑	6/9	순천	비온뒤 맑	9/13
여수	비온뒤 맑	8/12	영광	비온뒤 맑	4/10
나주	비온뒤 맑	7/12	진도	비온뒤 맑	6/10
완도	비온뒤 맑	8/12	전주	비온뒤 맑	6/12
구례	비온뒤 맑	6/13	군산	비온뒤 맑	5/12
강진	비온뒤 맑	7/12	남원	비온뒤 맑	5/12
해남	비온뒤 맑	6/11	흑산도	비온뒤 맑	6/9
장성	비온뒤 맑	6/1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북)	북동~동	1.0~2.0	북~북동	1.0~2.0
	면바다(남)	북동~동	1.0~2.0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	북~북동	0.5~1.5
	면바다(서)	남서~서	1.0~2.0	서~북서	1.0~2.0
	면바다(동)	남서~서	1.0~2.5	북~북동	1.0~2.0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좋음

◇물때

		간조		만조	
		06:06	18:58	00:38	13:36
목포		01:49	14:40	08:39	20:30
	여수				

◇주간 날씨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4/12	4/12	5/11	6/8	4/10	3/11	2/9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원장 허 정외 임직원일동

초음파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도입

자궁근종센터에서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근종, 선근종 치료

- 제 1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한국 여성민우회 「아름다운 병원」 선정
- 전국병원 의료기관 중 부인과 수술비가 가장 낮은 1위 병원

진료 내용
산부인과, 내과, 유방·갑상선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자궁근종센터, 건강검진센터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두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